

코로나 19 시대의 학습하는 몸과  
새로운 강의실: 대학 강의의  
경험을 중심으로

Classrooms in the COVID-19  
Era: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University  
Lectures

## 1. 서론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의 일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sup>1)</sup> 환경문제가 그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全)지구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환경문제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연관성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금의 이 전염병이 야생 그대로 놓아두어야 할 자연을 착취하여 낳은 결과라는 주장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환경 파괴와 바이러스 창궐의 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말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전면적이라는 점에서 환경문제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통점을 가진다. 다시 말해, 지금 당장 우리가 환경오염의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아도 환경 문제가 간접적으로나 다가올 미래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당장 우리가 그 질병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이란 동물주체인 인간주체인 주체와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세계, 즉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의미한다.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환경에는 자연뿐만 아니라 문화도 언급될 수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 문화적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자연환경의 변화와 문화환경의 변화를 완전히 분리시켜 생각할 수 있는지의 물음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이데거의 한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기술을 키워드로 삼아 두 환경의 영향관계를 이야기한다. 『기술에 대한 물음』이라는 논문에서 하이데거는 기술의 발달이 자연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당연히 이때 하이데거가 말하는 인간성의 변화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이다. 그는 기술이 자연을 닦달하고 몰아세우면서 자연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 중 일부만을 사용하고 그것으로부터 최대치의 결과를 뽑아낸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수력 발전소는 물이 지닐 수 있는 수천수만 가지의 가능성 가운데에서 전기를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만을 이용하면서 ‘자연’을 몰아세운다. 기술에 의한 자연(nature)의 가능성의 축소, 자연을 향한 닦달과 몰아세움은 이제 고스란히 인간의 본성(nature)에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기술에 의한 변화를 말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연파괴에서 비롯되어 일어났는지 순전히 우연적이든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문화적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감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컨택트에서 언택트로의 생활 방식의 전환은 인간의 소통을 컴퓨터와 같은 전자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에 의존하게 만들었으며, 우리의 일상의 현실을 크게 바꿔놓았다.

하이데거가 비판했던 기술은 오로지 효율성을 위해서 자연의 가능성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기술이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기술을 우리는 쉽게

1

우한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아직 논쟁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비판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의존하는 전자통신기술은 일상생활의 유지와 연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지 자원으로부터 최대치의 결과물을 뽑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기술들을 충분히 의식하고 반성할 수 있다. 즉 우리는 하이데거가 비판했던 것처럼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위해 반성 없이 기술을 따라가기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에 따른 결과들 내지 달라진 일상의 현상들에 대해서 더욱 주의하면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컨택트와 언택트라는 단어가 함축하듯이 변화는 무엇보다 몸의 경험에서, 그리고 생활공간의 경험에서 일어나고 있다. 감염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걸은 슬로건인 '사회적 거리두기'도 사실은 몸들 사이의 거리를 지시하고 있다. 직장, 음식점, 공원, 시장, 카페 등 다수가 모이는 공간에서 이런저런 제한이 부과되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변화는 교육 현장에서 강의실이 컴퓨터 모니터로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전통이 강조되는 교육 현장은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기 힘든 영역이다. 이는 인문학이 실용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대학에서 인문학을 가르치는 교양과목들은 여전히 필수교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사이버 강의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 어쩔 수 없이 거의 대부분의 대학 강의를 원격 강의 또는 녹화 영상으로 대체되고 있다.

필자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맡고 있는 과목들 가운데 논리학이나 서양철학입문은 수강생들이 최소 70명 이상인 대형 강의다. 수강생들이 70명 이상이다보니 코로나 이전에 나는 학생들 하나하나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기가 힘들었고, 강의의 진행도 일방적인 내용 전달로 주로 이루어졌다. 때로 팀별 발표가 있었으나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피드백을 일일이 주기는 힘들었다. 그런 조건에서 나는 원격 강의는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더욱더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실제로 결과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의외로 학생들의 집중이 강의실에서보다 원격 강의에서보다 더 나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컴퓨터라는 매체 자체가 경험에 미치는 영향 때문일 수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의 노력이 집중으로 이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필자는 지난 7-8개월 동안의 코로나 이후 바뀐 강의 경험을 토대로 달라진 강의 환경과 그 효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 2. 새로운 강의실과 몸의 경험

### 2.1. 첫 비대면 강의의 문제들과 해결책

지난 학기에 비대면으로 모든 강의를 대체되면서 생겨난 곤란한 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풀어야 할 문제는 출석 체크와 평가 방식이었다.

해가 갈수록 평가와 공정성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평가 방식들이 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을 뿐만이 걱정이었다. 또한 학생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강의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없는데다가 학생들의 반응마저 없을 때에는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노드라마를 찍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다. 온라인 회의용으로 제작된 웹엑스 프로그램은 강의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PPT와 같은 자료 화면을 띄워놓을 수 있어서 내용의 전달에는 오히려 대면 강의실에서보다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전달 방식이 아무리 효율적이라 한들, 모니터 너머의 학생들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힘들었다.

중요한 두 가지 문제 중 출결 관련 문제는 대학에서 마련해 놓은 전자출결 방식을 이용했다. 눈으로 출결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기록을 통해 출결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평가의 문제는 꽤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기말고사는 대학에서 시험 기간을 길게 잡아 널찍이 떨어져 앉을 수 있도록 여러 강의실을 확보함으로써 대면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준비를 했으나, 중간고사는 비대면 시험이건 대체과제건 담당교수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만 했다.<sup>2></sup> 나는 비대면이라는 바뀐 강의 환경을 고려하면서, 중간고사를 위해서 온라인 강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알아보아야만 했다. 그리하여 웹엑스 매뉴얼에서 발견한 것이 퀴즈 기능이었고 나는 몇 차례 일정한 시간에 미리 준비해 놓은 문제들의 퀴즈를 실시하여 중간고사를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소위 인강(인터넷 강의)이라 불리는 형태를 접해본 적이 없었던 나는 지인으로부터 인강의 경우, 매 회 일정 분량의 진도가 끝날 때마다 간단한 문제가 제시되고 온라인 수강생들은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소리를 들었다. 어찌 보면 인강에 가까워진 비대면 강의에서 그 방법은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라인 퀴즈들을 실시하기에 앞서 퀴즈를 다음 강의 시간에 볼 것인지, 아니면 당일 강의 시간에 볼 것인지를 설문조사로 물어보았다. 다수의 학생들이 선택한 당일 퀴즈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몇 번의 퀴즈들로 중간고사를 대체했다.<sup>3></sup> 비대면이기에 학생들이 강의안을 참고할 수 있어서 퀴즈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했고, 나는 한 문제당 1분 정도의 시간을 할당했다. 그렇게 실시한 강의 당일 종료 10분 전의 퀴즈는 학습 효과 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모니터만을 앞에 둔 새로운 형태의 강의실은, 만일 학생이 여러 브라우저를 띄워 놓고 산만하게 강의에 임하지만 않는다면, 그 자체가 집중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퀴즈의 실시는 학생들의 집중도를 더 높여 주었다. 학생들 편에서 강의 중간에 질문이나 요청이 더 많아졌으며, 어떤 학생들은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학 강의를 단순히 학습을 목적으로 한다면, 학원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대학 강의의 목적은 전문적 지식의 습득 이외에도 소통을 통한

## 2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대학에서는 결국 기말고사도 비대면으로 전환했고 교수들 각자가 알아서 평가를 해야만 했다.

## 3

온라인에서 설문형식의 활용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 교수나 학생이나 처음 겪게 되는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은 심리적 불확실성이었고, 설문형식을 통해 결정을 내림으로써 교수나 학생이나 서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성찰의 장을 마련하는 데 있다. 소통의 노력은 대학 강의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제 비대면 강의에서 소통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떠올려 보려고 한다.

## 2.2. 비대면 강의에서의 참여 차이

내가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놀란 것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의 의사표현이 대면 강의보다 자유로웠고 솔직해졌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카메라를 켜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 곤란해진 것은 나왔다. 모니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 노트북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내 얼굴과 내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어떻게 강의를 듣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채팅창에 올라오는 학생들의 말들이었다. 실상 채팅창의 글들은 말이라기보다는 문자이지만, 또 문자라고 하기에 애매하다. 왜냐하면 채팅은 실시간의 반응이고 문장의 형태도 구어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채팅창의 학생들의 반응을 학생들의 말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다.

비대면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적응이 필요했던 건 강의자만이 아니었다. 학생들도 적응이 필요했다. 그렇지만 온라인 게임이나 SNS 등 디지털 기기에 상대적으로 경험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은 강의자보다 빠르게 비대면 강의에 적응했다. 그리고 나는 익숙하지 않는 환경에서 강의를 하려다보니 학생들의 협조나 도움, 그리고 조언이 필요했다. 새로운 환경을 함께 겪는 교수와 학생 간의 잡담은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또한 채팅 창에서의 대화는 교수와 학생 간의 소통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떨 때에는 한 학생이 질문을 하고 내가 대답을 하기 전에 다른 학생이 대답을 하는 일도 있었다. 단순한 절차상의 질문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에도 다른 학생 몇몇이 내 대신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면 강의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왜냐하면 현실의 대형 강의실은 오로지 교단을 바라보도록 일방향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런 공간에서 학생들은 서로를 마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실제 강의실에 비해 온라인 강의실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자유로운 공간이 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면 강의실에서 70명이 넘는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할 수 없었고 그들을 이름으로 부를 일이 거의 없었는데, 채팅 대화창에서는 비록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대면 강의라면 다른 학우들의 시선 때문에 자기표현을 잘 하지 못했을 내성적인 학생들이 비대면 강의에서는 곧잘 대답을 하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대면 강의에서는 정해진 일정 수의 학생들만이 언제나 질문을 했던 반면에 비대면 강의에서는 그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채팅창에서 대화를 했기 때문이다. 때로는 나는 온라인상에서의 그러한 소통이 강의실에서처럼 일 대 다수의 관계에서 일어나기보다는 일 대 일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 학생의

입장에서, 강의실에서는 질문을 주고받는 교수와 학생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학우들이 동시에 눈에 들어오는 데 반해서, 온라인 강의에서는 모니터 화면에 오로지 교수만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환경이 어쩌면 채팅창에서 더욱 쉽게 말을 꺼낼 수 있게 만들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의 방식을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말은 말투, 표정, 몸짓 모두를 포함한다. 그런데 채팅창을 통한 소통은 그런 비(非)언어적 표현들을 모두 감추고 있다. 소통은 오로지 문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고작해야 'ㅋㅋㅋ'가 전부다. 실제 강의실에서라면 자기표현을 하지 못했을 학생들이 채팅창을 통해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람직하나, 채팅창의 소통이 지닌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소통상의 한계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시한다. 즉 비대면 강의는 강의 내용의 주변부들, 이를 테면 교수의 열정, 다른 학우들의 호기심어린 눈빛이나 지루함에 몸을 비트는 동작들, 다른 학우들의 목소리 등을 보거나 들을 수 없다. 그래서인지 비대면 강의는 상대적으로 강의내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사실상 온라인 매체 환경은 한정된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에 의존하기 때문에, 집중은 잘 될 수 있을지도 모르나 그만큼 피로도도 크다. 비대면 강의가 갖는 편리함은 동시에 불편함을 함축하고 있다. 즉 빠른 집중과 몰입감은 부지불식간에 높은 피로감을 낳는다.

### 2.3. 적응 이후의 비대면 강의

비대면 강의 2학기 째인 9월 개강을 하고 학생들을 처음 접했을 때, 학생들 편에서 지난 학기에는 나오지 않았던 질문이 있었다. "비디오를 켜야 하나요?" 나는 비디오를 켜지 말라고 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이고<sup>4)</sup>, 다른 하나는 70명 가까운 인원이 모두 비디오를 켜본들 내가 그들을 일일이 감독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카메라를 켜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자 역할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원격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비대면 강의 툴을 익히느라 정신이 없던 지난 1학기 때에는 없었던 질문이었다. 비대면 강의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황에서 학생과 교수는 대면강의에서의 규칙과는 또 다른 종류의 규칙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학생들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 익숙해졌으며, 이런 익숙함은 비대면 첫 학기인 1학기에 비해 2학기에서는 대면 강의에서처럼 늘 정해진 학생들만이 질문하고 대답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런데 중 필자는 대학 바깥에서 한정된 인원을 놓고 대면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오랜 만에 경험하는 강의실의 분위기와, 몇 명의 수강생들과 눈빛을 교환하고 실제 육성으로 질문과 대답을 하는 과정은 마치 밀폐된 공간 속에만 있다가 바깥으로 나온 사람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상쾌하고 행복했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서

4

지금은 코로나 19 상황  
한복판이라서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논의에 신경 쓸  
거를이 없지만, 모든  
우리의 생활이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기록됨으로써 생겨나는  
프라이버시 침해는 언젠가  
다뤄야 할 문제이다.  
비대면 강의에서 카메라를  
켜으로써 노출될 수 있는  
학생들의 사적 공간에 대한  
논의는 신문 기사에서 몇  
번 다뤄진 적이 있다.

무기력했던 몸이 갑자기 활기를 얻는 기분이었다. 이 경험 때문이었을까, 나는 한 학기의 비대면 강의 이후 학생들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강의 중에 질문을 던졌다. “6개월 이상 비대면 강의를 들었는데, 대면 강의에 비해 아쉬운 점이 발견된 것이 있는가요?” 처음의 답변은 “편해요.”였다. 그런데 곧 이어 두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다. “의욕이 떨어져요”, “다른 학우들과의 소통이 아쉬워요.” 나는 의욕이 떨어진다든 학생에게 구체적인 대답을 요청했고,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다른 학우들을 보면서 자극이 될 텐데 그런 자극이 없어서 의욕이 떨어져요.” 이 학생이 말하는 자극은 무엇일까? 그것은 ‘경쟁’의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또한 문자 그대로 감각 내지 지각적 자극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일부 학생들은 오랜 비대면 강의에서 현실적 지각이나 감각의 결핍을 느끼는 것 같았다.

우리의 몸은 감각들을 통해서 세계와 교류하고 소통한다. 여기서 우리는 몸에 대해 사유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현상학자이면서 몸에 대해 중요한 연구를 남긴 메를로-퐁티는 자극과 반응을 기계적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몸의 운동은 늘 세계의 자극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몸을 움직임으로써 외부 세계의 자극이 의미를 얻게 만든다. 다시 말해 세계의 자극은 우리의 몸의 이러저러한 운동을 유도함으로써 우리의 환경이 되고 의미를 갖는다. 이것을 메를로-퐁티는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끌고 온 신체 도식으로 설명한다. 몸의 움직임은 수많은 자극에 대한 반응들이라는 부분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몸이 움직일 때 몸의 각 부분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그렇게 움직임은 통합된 하나의 형태 내지 구조를 이룬다. 이러한 몸의 움직임은 움직임을 유도한 대상과 의미적 연관성을 가진다.

만일 장시간 비대면 강의에 임하면서 학생의 의욕이 떨어졌다면, 이는 그의 움직임을 이끌어낼 동기가 될 수 있는 자극이 비대면 강의에서 부족했다는 말일 수 있다. 그리고 의욕이 떨어졌다고 말한 학생에게 부족했던 것은 직접 볼 수 있고 직접 들을 수 있는 다른 학우들이었고, 자신을 포함해서 서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학우들이 함께 있는 공간이었다. 그렇다면 비대면 강의실에서 우리의 달라진 몸의 체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

### 3. 몸의 역량과 축소된 가능성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마블리(Mably)를 인용하면서, 근대 이후 감옥제도가 일궈낸 것은 신체에 부과되는 제재에 의해 정신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마치 잘못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죄에 있는 것처럼 수감의 처벌은 죄인의 정신을 개조하는 데 목적을 두게 된다. 과거의 처벌이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처벌이었다면, 이제 처벌의 대상은 신체가 아니라 정신 구조이며, 푸코는 그러한 처벌의 방식을 “그림자 처벌”<sup>5)</sup>이라고

명명한다. 실제로 내려진 처벌은 신체 감금에 의한 고립과 신체에 가해지는 규율의 강요였으며, 고립과 규율은 어떤 의미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고립은 신체를 다른 신체와 소통할 수 없도록 폐쇄하고 그런 조건에서 규율은 신체를 더욱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간주되었다. 그리고 그런 고립과 규율의 궁극적 목적은 정상성이었다.

1990년대 퍼스널컴퓨터가 널리 퍼지면서 많은 비평가들은 푸코가 벤담을 인용하면서 제시했던 파놉티콘을 떠올렸고, 홀로 컴퓨터 모니터만을 주시하고 있는 갇힌 몸과 정신을 파놉티콘의 죄수의 몸과 정신과 비교했다. 우선은 이러한 비교가 그럴 듯해 보인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초기 퍼스널컴퓨터처럼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푸코식의 비교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는데, 우선 현재의 컴퓨터 사용은 일방향성을 갖는 게 아니라 쌍방향성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통신매체를 경유한 공동체의 일원들, 컴퓨터의 사용자들은 감옥의 죄수처럼 고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컴퓨터 사용자들은 고립된 개인들의 집합처럼 모여 있지 않고 서로 커넥팅되어 있다. 물론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는 각자의 실제 공간은 푸코의 파놉티콘처럼 고립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정한 커넥팅이 가능하다. 푸코식의 규율이 가해지는 신체와 그에 적합한 공간<sup>6)</sup>은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런 규율적, 고립적 공간을 현대의 컴퓨터 사용자들의 공간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분명 달라졌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처럼 자유롭게 공간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간의 제한은 곧 몸의 활용에서 제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현상학에서 몸과 공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메를로-퐁티는 몸이 몸짓에 의해 공간과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계에 대해 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 각자의 몸이 세계와 관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몸은 공간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몸짓을 통해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중적 관계를 가진다. 여러 건축물들이나 구조물들은 인간의 몸짓의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인간의 몸짓은 마치 비가시적인 음악처럼 건축물들이나 구조물들에 새겨져 있다. 커피잔의 손잡이는 손의 몸짓을 포함하고 계단의 난간은 그 위로 기대고 있는 몸짓이나 그 위를 따라 미끄러지는 손짓을 포함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다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공간 안에 놓일수록 우리는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몸짓들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샹탈 자케(Chantal Jacquet)는 자신의 저서, 『몸』에서 “몸의 역량”<sup>7)</sup>이라고 표현한다.

그런 점에서 습관은 몸의 일정 부분만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이다. 습관은 몸 일부의 사용의 효율성을 최대치로 만들지만 몸의 다른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다. 가령 석공의 손은 마사지사의 손이 될 수 없고, 역도선수의 굵은 근육의 허벅지는 다리를 벌리고 뛰어오르는 무용수의 허벅지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습관은 우리의 몸이 가진 수많은 다양성 가운데 하나만을 고정시켜 각자의 몸의 본성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그런 몸의

6

푸코는 학교 역시 규율이 가해지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똑같은 복장이 요구되며 엄격한 질서가 유지되는 교실이 그런 공간이다.

7

Chantal Jacquet, *Le corps*, (PUF, 2001), p.187



특정한 사용은 몸 각자의 본성만을 만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정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강의실에서의 특별한 몸의 사용 및 공간 경험은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3시간 동안 다른 몸의 사용 없이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는 눈과 전자기기를 통해 전달되는 목소리를 듣는 귀, 그리고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의 움직임은 최고의 집중력을 낳거나, 아니면 거꾸로 최고의 집중의 결과이다. 비대면 강의가 시작되고 나서 물어볼 일이 있어서 동료 교수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하루 종일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었고 그래서 정신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 말에서 나는 그의 스트레스를 곧바로 감지할 수 있었다. 나 역시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비대면 강의가 시작되고 난 뒤 강의실만 컴퓨터로 바뀐 것이 아니라 연구실도 바뀌었다. 출석, 채점, 보고서 피드백 등 모든 것이 컴퓨터에서 수행된다. 교수들은 컴퓨터 앞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장시간을 보낸다. 물입과 산만.

비대면 강의에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그런 역설적인 두 가지 상태를 경험한다. 오로지 눈과 귀와 손가락의 습관적 사용은 모니터 화면에 우리의 정신을 고정시키지만, 그 모니터 화면은 무궁무진한 접속의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분산시킬 수도 있다.<sup>8></sup> 비대면 강의에서 몸의 한정된 사용은 어쩔 수 없을 터, 논의는 지나친 몰입과 지나친 산만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비대면 강의가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인 학습 의욕 및 동기 상실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자.

지나친 몰입은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모니터 화면 외에는 다른 시야를 가지기 힘든 상황에서 비롯된다. 다른 한편 눈과 귀가 컴퓨터에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은 빠르고 자유롭게 때문에 여러 브라우저를 오갈 수 있고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 수 있다. 어느 날 나는 비대면 강의를 하다가 스스로 몰입되어 피곤해진 나 자신을 느끼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짐작하면서 말을 건넸던 적이 있다. 비대면 강의에서 피로감을 느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한 학생이 ‘교수님 뒤로 보이는 책장에 가득 쌓인 책 가운데 좋은 구절을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대답했다. 거의 동시에 다른 학생은 ‘강의를 일찍 끝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처음 대답한 학생과 또 다른 학생들이 채팅창에 웃음의 반응들을 보였다. 나와 몇몇 학생은 잠깐의 산만함을 즐긴 것이고 이 산만함은 학생들 서로 간의 사소한 주고받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저 혼자 웹서핑이나 여러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노는 산만함과 다르다. 후자의 산만함이 여전히 혼자이고 모니터와의 면대면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면, 전자의 산만함은 같은 공간의 다른 ‘누군가’와의 커넥팅으로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대면 강의가 갖는 특이점 가운데 하나는 채팅창을 통한 학생들 서로 간의 대화가 비교적 수월하다는 것이다. 물론 교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주고받지는 않는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가 해결하기 위해 채팅창에

글을 적고, 또는 한 학우의 좋은 발표를 정말 재밌게 들었을 때 다른 학우들이 채팅창에서 고마움을 표시한다. 이 경우들에서 교수의 자리는 약간 뒤로 물러나 있다. 일차적인 주고받음은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일어난다. 온라인이기에 특별히 가능한 이것을 나는 강의의 울타리 안에서의 수평적 커넥팅이라고 부르고 싶다.

비대면 강의를 지속되면서 학생들이 느꼈던 의욕이나 동기 상실도 이런 수평적 커넥팅을 통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상 비대면 강의를 시작하면서 나는 온라인 툴을 익히느라 강의의 방식에 대해서는 고민할 여유가 없었다. 학생들을 볼 수 없고, 필기시험을 볼 수 없고, 팀 발표를 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강의록에 의존해서 강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비대면 강의의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인 지금 우리는 보다 효과적인 원격강의의 진행방식을 고안하고 도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강의 중에 학생들 간의 수평적 커넥팅이 정교하게 잘 구성될 수만 있다면, 비대면 강의의 단점인 전적인 몰입과 전적인 산만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대면, 즉 언택트 시대에 우리의 몸의 경험은 분명 예전과 달라졌다. 특히 타인들을 경험하는 방식에서 큰 변화가 있다. 타인의 직접적인 지각, 타인과 서로 마주 보고 타인과 대화를 하는 등의 직접적인 지각 경험을 전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방식으로 타인을 경험한다. 아무리 인간의 접촉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굳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금언을 상기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타인에 의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타인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언택트 시대의 바람직한 컨택트를 고안해야 하는 것일 것이다. 즉 컨택트 시대와는 다른 조건과 상황에서, 컨택트에 견줄 만한 것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4. 결론

필자는 코로나 시대의 대학 현장 안에서의 경험을 주제로 글을 쓸 수 있겠느냐는 요청을 받고 하루 종일 고민했다.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철학자들이나 여러 사상들에 대한 소개나 비평의 글을 써 봤어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글을 공적인 지면에 써 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급변하는 현 시대의 현상들을 관찰하는 비평적 글쓰기는, 현실은 현실을 대하는 방식으로, 책의 세상은 책의 세상을 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던 필자에게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도 코로나시대 이후 몇 개월 동안 비대면 강의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적어보기로 결심하고 요청을 수락했다. 그럼에도 한 번도 써 본적이 없는 성격의 글을 쓰는 일은 어려웠다. 글을 구상하면서 부지불식간에 가졌던 욕심은 글을 써내려가면서 사라졌고, 그저 나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적어보는 방향으로

글이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글의 시작과 글의 끝은 여행을 떠난 사람이 도착할 때와 다르듯이 달라졌다. 다만 여행의 끝에 이른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마음속에 품듯이 필자도 글을 마칠 때쯤 비대면 강의의 틀 안에서의 새로운 강의진행방식을 구상해보고 싶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백신이 내년쯤 상용화될 수도, 또는 그보다 더 먼 훗날에 상용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언택트 시대 이후 달라진 새로운 생활 방식은 이미 우리의 몸에 각인되어 있으며,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진다고 해도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랬을 때 가장 안 좋은 상황은 과거보다도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대학에서도 교수나 학생이 비대면 강의에 완전히 적응되었을 때, 전보다도 못한 강의 환경 속에서 그저 적응만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게 되었다. 언젠가 한 대학에서 학기 초에 새로운 교육에 대한 주제 발표를 들은 적이 있었다. 교양대 학장이었던 발표자는 외국 대학의 사례를 들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선도되는 경향성은 주입식 교육은 당연히 아니고, 창의력 개발의 교육도 아니며, 질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져야 하는 것은, 달라진 시대에 어떤 인간상을 목표로 교육할 것인가라는 교육 내용의 문제는, 달라진 매체나 몸의 사용이라는 교육 형식의 문제와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참고문헌

- 마르틴 하이데거, (2008), 『강연과 논문』, 이기상, 신상희, 박찬국 옮김, 이학사
- 모리스 메를로-퐁티, (2002),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옮김, 문학과지성사
- 미셸 푸코, (2010), 『감시와 처벌』, 오생근 옮김, 나남출판사
- Chantal Jacquet, (2001), *Le corps*, PUF